호남제일신문
2016년 07월 06일 수요일 002면 종합

진안-무주권 · 고창-부안권 지질탐방로 운영

도내 마이산 등 우수 자원 홍보 · 교육 효과 큰 기대

국가지질공원 인증을 추진하고 있는 진안-무주권, 고창-부안권의 지질탐방로가 본격적으로 운영된다.

도에 따르면 진안-무주권, 고창-부안권의 주요 지질명소를 탐방 및 체험을 위한 지질명소에 대한 정밀조사와 탐방로 설정을 완료하고, 지질탐방로 운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설된 지질탐방로는 마이산(진안), 구천동(무주), 운곡습지(고창), 채석강(부안) 등 각 군의 우수 지질명소에 대한 학습과 체험이 가능하며, 주변에 문화 · 역사 · 생태 등의 관광 자원이 풍부하여 지질탐방로 답사를 통한 탐방객들의 다양한 수요와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각 지질탐방로는 본격 운영에 앞서 지난 5월부터 도내 청소년과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예비운영을 실시하였으며, 탐방에 참가한 학생들은 "평소 학교 수업에서 배웠던 내용을 실제로 체험하면서 우리 도내의 지질명소와 자연환경의 소중함을 알 수 있었던 시간"이라면서, 지질탐방로의 성공적 운영과 전북도 국가지질공원 인증을 기원했다.

도와 4개 군은 현재 지질탐방로와 지질명소 안내를 위한 인쇄물과 해설판 등을 제작 중에 있으며, 오는 9월 중에 개설될 지질공원 홈페이지 운영을 통해 지질탐방로 탐방 안내 및 해설 예약 등 탐방객들의 탐방 편의와 학습 자료 제공을 위한 다양한 방법을 마련 중에 있다. 또한 지질탐방로 체험을 통한 학습 효과를 높이기 위해 전북대학교 생활과학교실 등의 유관기관과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 /박진완 기자